혜거 대종사, 오대산으로 돌아가다

임은호 · 정현선 · 김내영 · 김가령 기자



11월 8일 월정사 연화대에서 엄수된 여산당 혜거 대종사의 다비식. 700여 대중이 참석, 스님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11월 8일, 탄허박물관서 영결식
오후 1시 월정사 연화대서 다비식
700여 명 사부대중 마지막 배웅
"명상 세계화 초석 다진 스승"
막재 12월 22일 10시 월정사서

"혜거 스님…혜거 스님…속환사바 하소서."

11월 8일 오후 12시 오대산 월정사에 여산당 혜거 대종사의 법구를 모신 운구 차량이 등장하자 불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합장했다. 차량이 다가올수록 묵묵한 침묵에 잠겼고, 몇몇 불자는 혜거 스님의 이름을 읊조리며 눈물을 훔쳤다.

조계종 여산당 혜거 대종사 문도회 장의위원회(위원장 정념 스님)는 이날 오전 서울 탄허기념불교박물관에서 혜거 대종사의 영결식을 봉행하고, 스님의 재적본사인 월정사에서 다비식을 진행했다. 다비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원로의원 원행·암도 대종사,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탄허문화재단 이사장 삼지 스님, 동국대 HK연구교수 문광 스님과 문도스님들, 이원형 금강선원 신도회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혜거 대종사의 영정과 위패를 든 장의위원 스님들은 경내 적광전 앞마당에서 부처님께 세간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천왕문을 나와 전나무숲길로 향했다. 문도스님들과 포교사, 금강선원 신도들이 만장을 들고 그 뒤를 따랐다. 운구차에서 대종사의 법구를 내린 장의위원회는 일주문 앞에서 노제를 지냈다. 오색으로 물든 단풍을 보기 위해 월정사를 찾는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잠시 길을 멈추고 합장해 혜거 대종사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어 대종사의 법구와 만장 행렬은 해탈의 숲에 조성된 오대산 사리골 연화대에 도착했다. 법구가 연화대 위로 이운되는 사이 혜거 대종사가 생전 좋아하던 노래 '길닦음'이 울려 퍼졌고, 구슬픈 소리에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금강선원 가가합창단도 노래 '천상의 꽃'을 부르며 음성공양으로 스님의 화엄왕생을 기원했다.

사부대중은 3~4m 떨어진 곳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고, "불 들어갑니다. 불·법·승"이라는 외침과 함께 연화대에 불길이 치솟았다. 타오르는 불기둥 속에서 대종사의 법구는 연기를 따라 오대산 지수화풍으로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스님들과 불자들은 진심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해탈의 숲에 조성된 연화대로 향하고 있는 대종사의 법구와 만장 행렬의 모습.

동국대 HK연구교수 문광 스님은 "갑작스러운 큰스님의 원적에 아쉽고 안타깝다. 대종사는 35년간 금강선원을 이끌면서 강남 포교에 정성을 다했고,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많이 남기셨다"며 "대종사의 뜻을 이어받아 수행정진 하는 것이 남은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혜거 대종사는 명상의 세계화에 초석을 다진 이 시대 큰 스승"이라고 강조한 봉인사 주지 적경 스님(한국명상지도자협회 상임이사)은 "한국불교를 알리기 위해 명상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의 뿌리가 되어 준 큰스님의 원력에 보답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묘법심(서울, 66) 불자는 "늘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일러준 혜거 대종사의 말씀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묘법심 불자는 "23년간 금강선원에서 혜거 스님과 공부했다. 항상 올곧았던 스님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기 위해 애쓰셨는데, 내가 무지해 깨우치지 못했다"며 "열심히 못해서 죄송하다. 면목 없다"고 참회했다.

김상수행(서울, 85) 불자도 "이틀 전까지 강의를 하셨던 스님의 갑작스러운 원적 소식에 느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내 인생의 스승이신 혜거 스님의 극락왕생을 마음 깊이 기도한다"고 추모했다.

불교경전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역경불사에 매진하고 강남 도심 포교를 이끌며 시대에 맞는 한국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힘쓴 여산당 혜거 대종사는 사부대중의 울음을 뒤로한 채 추모 입정을 끝으로 오대산의 품으로 돌아갔다.

앞서 오전 8시, 서울 탄허기념불교박물관에서는 영결식이 봉행됐다.

장의위원회 위원장 정념 스님은 원행 대종사가 대신한 영결사에서 갑작스럽게 입적에 든 스님을 향한 허전한 마음을 표했다. 스님은 "경전 강의때는 열정과 환희심으로 가득하고 〈화엄경소론찬요〉 번역 땐 피로를 잊은 듯하며 참선과 명상 지도 때는 누구보다 자상하셨다"면서 "스님께서 스승님의 영은사 3년 결사를 계승하고자 이곳 탄허기념불교박물관을 건립하고 불교 인재 불사를 발원하셨듯,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대중들도 스님의 뜻을 이어서 이곳이 미래 한국을 세계 중심국으로 우뚝 서게 할 위대한 인재가 나오는 도량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혜거 대종사의 3재는 11월 24일 오전 10시 탄허기념불교박물관서, 4재는 12월 1일 오전 10시 금강선원서, 5재는 12월 8일 오전 10시 탄허기념불교박물관서, 6재는 12월 15일 오전 10시 금강선원서, 막재는 12월 22일 10시 오대산 월정사서 봉행된다.

종상 대종사, 적멸에 들다

하성미 · 김가령 기자



대궁당 종상 대종사의 영결 · 다비식이 11월 12일 불국사 범영루 일원에서 봉행됐다. 사진은 종상 대종사가 다비를 통해 사바세계서 마지막 법문을 보이고 있는 모습.

11월 12일, 불국사 범영루서
종상 대종사 원로회의장 엄수
"이사겸비한 宗匠" 애도 물결
묵묵히 종단 뒷바라지 원력행
49재, 불국사 · 기림사서 봉행

이사무애(理事無礙) 원융의 삶을 실천하며 중생을 위한 보살행을 펼친 이 시대의 원력보살, 조계종 원로의원 대궁당 종상 대종사(불국사 회주)가 불국토 토함산의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대궁당 종상 대종사 원로회의장 장의위원회(위원장 자광 스님)는 11월 12일 불국사 범영루 앞에서 종상 대종사의 영결·다비식을 원로회의장으로 봉행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보선 스님의 대독한 법어를 통해 "종상 대종사께서는 생사무상의 고통을 느끼고 출가한 이래 수행과 교화와 가람수호에 힘쓴 선지식이었다"며 "산승이 금일 법공양 올리오니 진리의 삼매락을 누리소서"라고 추모했다.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는 영결사에서 "종상 대종사는 이사(理事)를 겸비한 눈 밝은 종장(宗匠)이자 만덕(萬德)의 법기(法器)를 갖춘 원력보살이었다.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의 가람수호에 매진하며 토함산 산주(山主)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며 "종상 대종사께서 10단의 연화교와 8단의 칠보교를 건너 열반에 이르셨다는 소식에 산주를 잃은 슬픔에 토함산도 산그늘이 길게 드리웠다"고 애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두 발은 항상 서라벌의 넓은 들녘을 딛고서 꿋꿋히 서 있고 두 손은 언제나 토함산의 푸른 소나무를 어루만지시다가 이제 금오(金烏)가 되어 날개를 펴고서 하늘을 꿇고 날아가시니 사부대중은 비감(悲感)으로 말을 잊은 채 사위(四圍)는 적요만 가득하다"고 슬픔을 전했다.

이어 "모든 종책불사에 든든한 후견인을 자처하며 묵묵히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스님은 자비보살의 화현이셨다. 종장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따라 후학들 역시 그 길을 부지런히 따라갈 것이다"고 추도했다.

불국사 원로 덕민 스님은 조시를 전하며 추도했고,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허운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 등 내빈들이 조사를 통해 종상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했다.



대궁문도회 대표 성행 스님이 문도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헌승 국회정각회장,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등 재가 내빈들의 조사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종상 대종사는 천년고찰 불국사의 회주로서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의 가르침을 설파하시며, 나라의 평안과 국민의 행복을 염원하셨던 이 시대의 큰 어른이셨다"며 "부처님의 은혜를 사회로 환원하셨던 대종사의 큰 뜻을 받들어 저와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은 "대중 포교에 늘 앞장서며 불교를 지향하신 큰 스님께서 남겨주신 많은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항상 실천하는 우리 불자가 되겠다"며 "이 자리를 빌려 큰 스님의 공덕을 기린다"고 추모했다.

대궁문도회 대표 성행 스님은 영결식을 마무리 하며 참석해 준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성행 스님은 "저희 상좌들은 스님의 뜻을 이어 정진하며 대중과 화합하고 원융살림을 일궈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결식 이후 종상 대종사의 법구는 오색만장 긴 행렬을 따라 다비장 연화대로 이운됐고, 토함산을 붉게 물든 낙엽은 법구를 따라 바람에 날려 흩어졌다. 영정과 위패를 든 이운행렬을 따라 마지막을 길을 배웅하던 불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극락왕생을 기도했다.

"스님 불들어 갑니다." 애통한 울음으로 소리치는 대중을 뒤로 한 채, 연화대에 안치된 대종사의 법구는 붉은 불기둥 속에서 지수화풍이 되어 토함산으로 돌아갔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회주 종상 대종사는 1965년 7월 15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월산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75년 불국사 재무국장, 1980~1985년 총무원 조사국장·총무국장을 지냈으며, 8·9·12·14·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며, 종단 발전을 이끌었다.

대종사는 2021년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했으며, 2022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추대됐다. 이후에도 불국사 회주, 분당 석가사 주지, BTN불교TV 명예이사로서 불교발전과 중흥을 위해 후학을 제접해오던 중 11월 8일 새벽 홀연히 원적에 들었다.

한편, 종상 대종사의 49재는 11월 14일 오전 10시 불국사 무설전에서 엄수된 초재에 이어 2재는 11월 21일 기림사에서 봉행하며, 그 외 3재 11월 28일, 4재 12월 5일, 5재 12월 12일, 6재 12월 19일, 막재는 12월 26일 불국사에 봉행될 예정이다.

曹溪宗 元老議員 大弓堂 宗常 大宗師

永訣式 奉行에 대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지난 11월 8일 열반하신 大韓佛教曹溪宗 元老議員 大弓堂 宗常大宗師의 永訣式을 11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佛國寺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먼 길에 직접 찾아와 큰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宗團의 元老大德 스님들과 제방의 스님, 사부대중께 삼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韓國佛教中興을 위해 헌신하신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후학들은 더욱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대궁당 종상대종사 추모제 안내

■ 초재	2024년 11월 14일 10시	불국사
■ 2 재	2024년 11월 21일 10시	기림사
■ 3 재	2024년 11월 28일 10시	불국사
■ 4 재	2024년 12월 5일 10시	불국사
■ 5 재	2024년 12월 12일 10시	불국사
■ 6 재	2024년 12월 19일 10시	불국사
■ 막재	2024년 12월 26일 10시	불국사

문의처 : 불국사 종무소 (054-746-9912)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대궁당 종상대종사 원로회의장 장의위원회